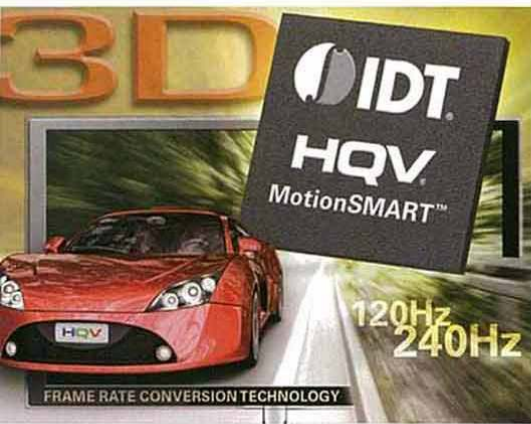


IDT, 디지털·아날로그 통합으로

최적화된 시스템 레벨 솔루션 제공



IDT(Integrated Device Technology)가 앞으로의 사업전략 및 최신 솔루션을 발표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있었으니 IDT의 새로운 기술인 HQV 모션 스마트 기술을 바탕으로 한 3D 지원 속도 변환 프로세서 'VHD1200/2400'이다.

글_김연정 기자(yeonjeong@nekorea.co.kr)

“디지털 혼합신호 부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날로그, 시스템 지식을 강화하여 최종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최적화된 혼합신호 솔루션을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IDT의 테드 트웝스버리(Ted Tewksbury) 사장 겸 CEO의 말이다.

그는 IDT와 다른 기업과의 차이점을 말하면서 각각의 기능이 집적된 개별적인 제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시스템 레벨에서의 성능을 향상하고, BOM 비용을 낮추며, 시스템 파워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체적인 '시스템 레벨에서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아날로그 영역의 난제

원래의 IDT는 디지털 중심의 회사였던 것이 사실. 이 때문에 아날로그를 접목시키게 되면서 발생하게 될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트웝스버리 CEO는 “디지털 분야와 아날로그 부문의 업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윈윈(Win Win)'할 수 있는 업무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에서의 경험이 모두 있는 시스템 엔지니어를 영입하여 총체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시스템 전문가를 영입할 때는 해당 시장과 관련된 전

문가 영입을 위주로 했다.

4가지 사업분야에 주력

IDT는 통신, 기업용 컴퓨팅, 비디오 및 디스플레이, 컴퓨터와 멀티미디어의 4가지 사업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통신 분야에서는 무선인프라를 제공하며, 기업용 컴퓨팅 부문에서는 서버 솔루션, 비디오 및 디스플레이에서는 넓은 분야에 걸쳐 있는 복잡한 IC를,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 부문에서는 휴대용 배터리 기기를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다.

트웝스버리 CEO는 “회사 내에서의 유기적인, M&A를 통한, 그리고 다른 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높은 수준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IDT는 최근 3개의 신제품을 발표했다.

첫 번째는 전력관리IC인 'IDT P95020'으로, 유연하고 지능화된 터치 컨트롤러, 휴대용 배터리 기기 등을 위한 IC이다. 두 번째는 'IDT90E2x'로 파워 미터링 IC다. 트웝스버리 CEO는 “IDT90E2x는 중국 내 스마트그리드를 위해 만든 IC로 다이내믹하고 정확한 측정을 제공한다. 또한 아날로그 역량을 바탕으로 했으며, 중국을 타깃으로 한 제품이니만큼 한 시장에 맞춤형 제품을 선보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제품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업계에 처음 발표된 3D 프레임 속도 변환(Frame Rate Conversion, FRC)

기술인 'HQV 모션 스마트(MotionSMART)' 솔루션을 소개했다.

HQV 모션 스마트 기술 채택

IDT 비디오&디스플레이 사업부의 지 박(Ji Park) 부사장 겸 총괄 매니저는 TV와 HD 비디오 프로젝터를 겨냥한 HQV 모션 스마트 기술의 싱글칩 FRC 프로세서인 120Hz의 'VHD1200'과 240Hz의 'VHD2400'을 소개했다. 지 박 부사장은 “지금까지의 FRC보다 향상된 프로세싱 능력을 통해 높은 화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지 박 부사장은 “이 칩을 이용하면 움직이는 물체를 나타낼 때 주위에 나타나게 되는 잔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픽셀당 프로세싱 기능을 탑재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시연을 보이며 설명했다. 그 밖에 수평, 수직 또는 대각선으로 카메라가 패닝(Panning)할 경우, 발생하는 저더(Judder) 현상을 최소화하고, 반복적인 구조에서도 정확한 감지를 할 수 있으며, 경계면에서의 굴절현상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프로세서는 해상도 향상 엔진이 탑재된 것이 특징이다. 지 박 부사장은 “해상도 향상 엔진은 추가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칩이다. 이를 내장함으로써 고객사에게 제품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